

우리 동네 **맛**플  
이 가게 어때?

### 수커피

달서구 감삼4길 47, 1층 / 문의 ☎0507-1343-6903

## ‘커피 한 잔’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공간



정형화된 대형 카페가 식상하신 분들은 감성 있고 정이 있는 ‘수커피’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?

감삼동에 새로 오픈한 카페가 있습니다. 빌라촌 사이에 있는 ‘수커피’라는 곳입니다. 감삼역 2번 출구에서 멀지 않아 찾아가기도 쉽습니다.

코끝을 스치는 커피 향이 마법에 걸린 듯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



했습니다.

아기자기하고 정갈한 인테리어는 사장님의 센스와 소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

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라테와 더불어 피넛 밀크쉐이크, 왕땅콩빵, 크럼블, 수제 샤브레쿠키, 그리고 카페인 때문에 커피 마시기 힘든 신분을 위한 핸드드립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골라 먹는 재미 또한 있습니다.

사장님께서 매일 직접 만드는 쿠키는 기계로 찍어대는 쿠키와는 다르게 많이 달지도 않고, 입안에서 한가득 느껴지는 풍미가 커피와 잘 딱궁합을 이룹니다.

주문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왕땅콩 빵은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연세 드신 부모님과 함께 가신다면 부모님의 옛 기억도 살려드리고 행복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
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차들이 준비되어 있고, 가격도 저렴해 요즘 밥보다 비싼 커피값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단번에 없애주는 곳입니다.

커피 맛이 고소하고 진해 한 모금 마시면 하루 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힐링 되는 카페입니다.

커피 한번 마시고 나면 다른 곳의 커피는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. 매일 생각나는 커피 한 잔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여기가 바로 ‘수커피’입니다.

피’입니다.

친구들과 조잘조잘 수다 떨기도 좋고,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학부모님 모임을 하기도 좋고, 혼자 달달한 수제쿠키에 커피 한잔하며 생각에 잠기기도 너무 좋은 곳입니다.

계획해야만 차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맛있는 수제 디저트로 힐링할 수 있는 우리 동네 ‘수커피’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.

박민준 객원기자

※ 영업시간: 매일 09:00~21:00 (20:30 라스트오더)

☞ 9월 10, 16, 17, 24일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무입니다.

2021 이용자만족도 푸른방송 전국 1위

##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

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**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** 기획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.

기획 기사를 통해 가게 **홍보의 기회**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**희망의 메시지**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푸른방송 551-2000, 푸른신문 572-6000로 연락 주십시오.

\* 1.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

푸른신문에 제보해 주신 기사가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.

\* 2. 사랑하는 사람, 보고싶은 사람, 고마운 분들에게 ‘사랑의 메시지’를 보내세요.

사연과 관련 사진,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 제작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

(이메일 gcsup@gcs.co.kr)

푸른방송  
홈페이지 QR코드



푸른신문  
홈페이지 QR코드

